

◀ ‘대부도 주민 절반이 아직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중)

대부도 주민 5,500세대 중 3,000여 세대는 아직도 지하수 먹고 있다

대부도 주민 모두가 수돗물을 먹게 되는 그날을 위해 ‘대부도저널’이 앞으로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첫 번째 ‘대부도 주민 절반이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태’에 이어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대부도 주민 절반이 아직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를 집중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도 주민 중 절반이나 되는 세대가 아직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시설비 때문이다.

세대당 평균 500만원이 소요되는 높은 시설비는 가난한 대부도 주민들을 울게 만든다.

수도를 설치하는 데는 민법 218조

시설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용승낙서를 인감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공무원의 요구는 당연히 추가금액으로 이어져 수도시설을 원천 봉쇄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설비만 해도 500만원인데 사용승낙서까지 첨부하려면 그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도로사용(사도) 문제를 공무원이 방치하면서 사인간의 문제로 처리하게 되니 사용승낙을 받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주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절대로 승낙을 안 해 주는 사람도 있다. 행정불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도로 지분자가 10여 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일일이 인감 받고 토지사용 승낙서 받기가 비용을 떠나 또 다른 상황으로 힘든 이유다.

하지만 공무원은 중재갈 은 적극행정은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모든 서류를 떠넘기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편에서 설명했던 민법218조(수도등시설권)와 민법219조(주위통행권)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무원이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공무원이 민원을 핑계로 과잉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만 검토한다면 주민간의 심대한 마찰로 과잉비용지출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안산시가 소극적으로 행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모두가 해결될 일이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 대표 관광지 12경으로 확대 시민·관광객 아우르는 명소가 될 것

김홍도길 수암봉 호수공원
바다향기수목원 신규 포함

안산시가 11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를 담은 ‘안산 12경’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당초 안산 9경에 등재됐던 노적봉공원(폭포)이 김홍도길에 포함되는 등 네 곳의 명소가 추가됐다.

이번 안산 12경 선정은 기존 대부도 중심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시내권과 도심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관광 균형 발전과 안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1차 설문조사를 거쳐 2차 전국민 선호도 조사,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12경을 선정했다.

안산 12경에는 기존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나조 ▲탄도 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안산갈대습지 ▲다문화거리에 더해 ▲김홍도길(노적봉공원(폭포) 포함) ▲수암봉과 안산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이 신규 포함됐다.

특히, 새롭게 선정된 김홍도길은 김홍도미술관을 시작으로 노적봉공원(폭포), 단원조각공원, 성호박물관, 안산식물원 일대를 연결하며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만의 특별한 관광 코스로 구성됐다. 안산 시민이 산책과 조깅을 즐기는



안산시가 11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를 담은 ‘안산 12경’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당초 안산 9경에 등재됐던 노적봉공원(폭포)이 김홍도길에 포함되는 등 네 곳의 명소가 추가됐다.

코스로도 유명하다. 수암봉과 안산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의 경우, 시민 선호와 함께 시의 역사·문화·생태·해양 등 다양한 테마를 아우르는 명소로 평가됐다.

시는 이번 12경 선정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지 대부도를 찾는 관광

객을 시내 관광지까지 연결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될 안산시가 향후 어떻게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이루는 대안을 제시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123번 노선 친환경 수소 버스로 전환 청정 대부도 위해 주민과 함께 달린다

123번 노선에 투입되는
16대 차량 중 절반인
8대가 수소 버스로 전환

안산시는 지난 4일 대부해양본부 회의실에서 대부도 지역을 운행하는 123번 노선의 친환경 수소 버스 전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이민근 시장과 박태순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대부도 주민, 운수업체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시 123번 노선은 대부도 탄도~배곧신도시~오이도역~안산역~안산

시청을 연결하는 버스로, 대부도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교통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수소시범 도시를 완공한 데 이어, 수소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송사업자인 태화상운(주)과 긴밀한 협의 끝에 이번 수소버스 전환 도입을 이끌었다. 태화상운(주) 또한 차량 도입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으로 123번 노선에 투입되는 16대 차량 중 절반인 8대가 수소 버스로 전환됐으며, 나머지 8대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대부도 노선

을 시작으로 시 전역에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부동 주민들은 이민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대부도의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을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민근 시장은 “천혜의 청정 자연을 품은 대부도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수소 버스가 운행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안산시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산업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써,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市, 우수행정·정책사례 선발대회 복지·전략 분야 동시 수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한 행사 ‘패거’

안산시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한 ‘2025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2건의 정책이 우수행정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발대회에서는 독창성, 효율성, 정책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중앙기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156여 개의 정책 가운데 우수사례로 최종 48건이 선정됐다.

안산시는 이번 수상에서 복지분야의 ▲복지정책과 ‘이동식 기부 플랫폼 나눔키오스크’와 전략 분야의 ▲전략사업과 ‘원패스(ONE-PASS) 공모사업 관리모델’이 각각 참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동시 수상하며 우수정책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받았다.

복지정책과가 추진한 ‘시민참여형 이동식 기부 플랫폼 - 스마트 나눔키오스크’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생활 속 기부 실현 모델이다. 이동식 플랫폼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형 기부문화와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눔키오스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돼 기부의 접근성과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각종 축제·시민참여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공공참여를 기반으로 나눔을 확산시켜 왔다.



안산시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한 ‘2025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2건의 정책이 우수행정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3E(Education, Easy, Experience) 나눔문화 교육’을 운영하면서 나눔키오스크를 활용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기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의 선순환 기부 문화사례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형 나눔키오스크는 이제 대한민국 기부 문화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이다.

안산시 전략사업과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공모사업팀’

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ONE-PASS(원패스)’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모사업을 ▲기획 ▲응모 ▲선정 ▲성과관리까지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내 협업과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모사업별 전략적 사전기획과 부서별 협업을 통한 체계적 대응으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시는 ‘ONE-PASS(원패스)’ 시스템을 통해 ▲다문화마을특구 지역특성 살리기 ▲GH 의료복지사회공헌 ▲우리 고장 유산활용사업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

맞춤형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 미래산업을 행정에 반영하는 혁신 공모사업으로 ▲AI융합 국민안전 실증사업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 현재까지 총 322건(2,547억 원)에 달하는 외부 자원을 확보하며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가 혁신적이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 시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시민과 함께 투명경영' 안산도시공사 정보공개 모니터단 출범

시민 눈높이 정보 제공 접근성 향상...책임 있는 공공정보 제공 체계 강화

안산도시공사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경영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위촉된 정보공개 모니터단 8명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안산도시공사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 향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출범한 모니터단은 단순

한 감시 기구를 넘어 시민과 공사 간의 소통채널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경영 실현과 시민 신뢰도 제고는 물론,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정보공개 모니터단은 시민의 시각에서 공사의 정보공개 운영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공기업을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 한국어랭귀지스쿨(KLS) 이음 한국어교실

지난 4일 안산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수료식 가져

안산시평생학습관(신영철 관장)이 지난 4일 안산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위탁학생, 재직학교 교장, 안산시평생학습관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산 한국어랭귀지스쿨(KLS) 이음 한국어교실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음 한국어교실은 입국 초기 다문화 학생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위탁사업이다.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중고등 다문화 학생에게 한 학기에 60일간 한국어 집중교육과 기초 수학, 과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는 ‘PPT 발표 - 나를 소개해요’, ‘우수 발표상 및 학업 우수상 수여’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축하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진 교육장은 “이음 한국어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전하면서 “학생들이 한국어 단어 하나를 말할 수 있기까지 지도교사 분들과 안산시평생학습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신영철 관장은 “이음 한국어교실이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안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 한국어랭귀지스쿨(KLS) 이음 한국어교실 2학기 입학 문에는 안산시평생학습관이나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커뮤니티 지원사업 운영

별별청년 중간교류회 90여명의 안산청년들 커뮤니티 활동 교류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이하 상상대로)가 2025년 안산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별별청년 중간교류회>를 지난 7월 5일(토)에 진행했다.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인 <별별청년>은 안산시에 생활권(거주, 일, 학교, 활동 등)을 둔 청년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100만원과 교류회,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에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통해 최종 30팀을 선정했다.

이번 교류회는 커뮤니티 간 교류

를 활성화하고, 각 커뮤니티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조별로 나누어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서로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했다.

또한, 커뮤니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제가 함께 진행되어,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번 중간교류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청년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와 자긍심 고취, 참여자 간의 연결을 위한 교류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평생학습관이 지난 4일 안산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위탁학생, 재직학교 교장, 안산시평생학습관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산 한국어랭귀지스쿨(KLS) 이음 한국어교실 수료식’을 마쳤다.

김태창 기자

시민과 함께 투명경영' 안산도시공사, 정보공개 모니터단 출범

시민 눈높이 정보 제공 접근성 향상...책임 있는 공공정보 제공 체계 강화

안산도시공사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경영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위촉된 정보공개 모니터단 8명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안산도시공사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 향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출범한 모니터단은 단순한 감시 기구를 넘어 시민과 공사 간의 소통채널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경영 실현과 시민 신뢰도 제고는 물론,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정보공개 모니터단은 시민의 시각에서 공사의 정보공개 운영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공기업을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병 청년위원장 안두희
△대부해양본부 본부장 서병구

박해철 국회의원 ‘살고 싶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노력

보다 나은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은 9일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에 조성 중인 신길2지구 공공주택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살고 싶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태형·이기환·김철진 경기도의원들과 박은경·박은정·선현우·황은화 안산시의원, 김동수·나정숙 특별보좌관, 안산시청, LH,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신길2지구의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박 의원은 “신길2지구가 시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새로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LH가 세심하게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만드는 것도 중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은 9일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에 조성 중인 신길2지구 공공주택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살고 싶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태형·이기환·김철진 경기도의원들과 박은경·박은정·선현우·황은화 안산시의원, 김동수·나정숙 특별보좌관, 안산시청, LH,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김태창 기자

요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 문제와 광역도로 연결 등 접근성 향상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달라”

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획, 자연녹지지역 활용 방안,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양

한 사안이 논의됐다. 관계기관은 이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철진 도의원, 반달섬 학교민원관련 안산교육청과 간담회

반달섬의 생활형 시설 오피스텔 전환으로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 거리 문제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하기 위해 노력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미래과학협력)은 4일 반달섬 지역의 학교 민원 해소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반달섬의 생활형 숙박 시설 ‘라군인테라스’의 거주형 오피스텔 전환으로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 거리 문제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반달섬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인근 시흥시 거북섬 지역의 학교배치

를 희망하였으나 거북섬동의 향후 입주 예정에 따른 학생수증가 등으로 전·입학이 어려워 안산시 5개 공동학군 내 학교로 배정되고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493세대 규모의 라군인테라스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입주 추이와 민원인들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민원인과의 간담회 및 안산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거주형 오피스텔 전환에 따른 예견된 문



김철진 도의원이 4일 반달섬 지역의 학교 민원 해소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제인 만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안산시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

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의회 박태순 의장 ‘현장서 쓸고 담고’ 구슬땀 소통



안산시의회가 박태순 의장이 7일 아침 단원구 선부동 동명아파트 삼거리 일원에서 환경미화원 업무 체험을 실시하고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태창 기자

환경미화원 애로사항 청취 현장 근로자 여건 개선노력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7일 환경미화원 도로청소 가로반 업무 체험을 통해 안산시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아파트 삼거리에 서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를 시작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복장을 갖추어 입은 박태순 의장은 청소 도구를 들고 일대 150m가량의 구간 쓰레기를 수거한 뒤, 참여한 미화원들과 근로 여건 개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미화원들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쓰레기 수거용 봉투 크기가 75리터로 작아 잦은 교체도 쓰레기통 케이스는 이전 100리터 크기 그대로라 봉투 거치

가 힘들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한 몸이 아파 병가를 쓰려고 해도 일손 부족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태순 의장은 정년퇴직자 등 감소 인력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은 근무량 과중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안전 위험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현실을 감안한 인력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 도구와 보호 안경, 마스크, 하계용 애어 조끼 등 가로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질 좋은 장비의 원활한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상시 자동차 매연을 맡으며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된 쓰레기를 처리해야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 건강검진이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등 환경미화원 건강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체험 활동을 마친 박태순 의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은 도로청소 가로반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노동존중, 사람을 우선하는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취임 1년을 맞은 시점에서 남은 하반기 1년 동안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장윤정 도의원, 중앙중 ‘친환경 운동장 조성’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오른쪽에서 세 번째) 의원이 8일 중앙중학교를 방문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정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학생 안전과 체육활동 개선 학부모·지역사회 ‘큰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8일 중앙중학교를 방문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정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중학교는 올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를 선정되어, 13억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야구부를 운영 중인 중앙중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훈련 환경과 전반적인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성환 중앙중 교

장은 “학생들이 희망해 온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했다.

또 “야구부는 물론 전교생이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환 교장은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학기 학사일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미래의 야구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충분한 연습환경”이라며, “이번 친환경 운동장 조성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뿐 아니라 지역 스포츠 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윤정 의원은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과 학부모의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

모회가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인 야구협회 관계자도 참석해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 여건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노후된 야구망도 함께 교체해 안전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야말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본사 임원진과 대부해양본부 서병구 본부장 차담회 가져

10일 본지 양운영 회장 윤성용 발행인과 함께 서로가 대부도 발전위해 ‘선한 영향력 행사하자’ 다짐

대부도저널 양운영 회장과 윤성용 발행인이 대부해양본부 서병구 본부장과 함께 10일 오후 1시간 정도 차담회를 가졌다.

본사 회장실에서 가진 이날 차담회는 서병구 본부장이 안산시관광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양운영 회장을 찾아뵙기 위한 자리였으나 양 회장이 대부도저널 회장직도 함께 맡고 있는 것을 알고 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대부도의 현황, 대부해양본부의 위상, 안산시관광협의 회회 주요사업, 신문사 역할 등이 논의됐다. 추가적으로 양 회장이 맡고 있는 대부도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대화가 오고갔다.

양 회장과 윤 발행인은 “대부도 면

적은 안양시만큼 넓은데 인구는 고작 1만명도 안된다”면서 “대부해양본부 직원의 책상위에 인·허가 서류가 쌓여있다면 그 직원은 일하지 않는 직원이다”고 말하고 “책상위에 서류가 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웃으면서 당부했다.

서병구 본부장은 “대부동행정복지센터 안에 대부해양본부가 있는 만큼 우리는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우리는 대부동과 안산시의 중간역할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과 조율중이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차담회를 가진 3명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대부도 어려운거 있으면 서로 돕자.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자.”고 다짐했다.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은 그동안



대부도저널 양운영 회장과 윤성용 발행인이 10일 오후 본사 회장실에서 대부해양본부 서병구 본부장과 함께 1시간 정도 차담회를 갖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사진 왼쪽부터 윤성용 발행인, 양운영 회장, 서병구 본부장, 김진규 대부개발과 행정팀장, 주무관이다. 김태창 기자

시청 녹지과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7월 1일자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부해양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대부해양본부를 거쳐간 많은 본부장은 행정직이었으나 서 본부장은 녹지직으로 기술직이어서 시민들은 “이제는 인·허가를 좀 아는 본부장이 왔다”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공유수면 불법 점용 사용 집중단속 돌입

대부해양본부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확산에 따른 진입로 폐쇄 등 강력조치에 들어갔다.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62조에 의거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확산에 따른 진입로 폐쇄(2025. 7. 1) 및 행정처분(변상금의 징수, 고발 등) 예정이니 2025. 7. 1. 까지 자진 철거에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공지했다.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다발 지역 알림

단원구청 가로정비과는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가 주·정차 금지구역임으로 알리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불법주·정차 민원 발생 시, 예고 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구봉도 주변 해역 출입통제장소 알림

대부도 지역 대부분의 해안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안가 일부 지역에 대해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무단출입시 처벌받을 수 도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기간은 연중으로 야간시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대상은 여름철을 맞아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든 수영 활동자로서 평택해경에서 출입을 금하고 있는 지역을 출입할 경우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부바다향기테마 파크 내 공공시설물 훼손행위 금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공공시설물의 훼손,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으로 행위를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가 시민을 대상으로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행위 신고 및 문의는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031-481-6992)로 문의하면 된다.

대부동, 제2회 체육회장배 족구대회 친목도모 위해 개최

주민 화합과 대부도 기관·단체 친목 다져 대부동 펜션시티에서

단원구 대부동 체육회는 8일 대부동 펜션시티에서 제2회 대부동 체육회장배 족구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족구대회는 동 체육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동 체육회 주관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대부도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부동 119안전센터, 평택해경 안산과 출소, 대부해양본부 등 기관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동 단체장연합회 등 7개 유관기관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해 운동으로 땀 흘리고 준비한 많은 음식을 먹으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정용운 대부동 체육회장은 “이번 족구대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유관기관 및 단체,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체육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항상 대부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부동 체육회에 감사드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유관기관, 단체,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대부동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부동 체육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동 체육회는 8일 대부동 펜션시티에서 제2회 대부동 체육회장배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불법으로 행위 목적 선박 신고요망

항포구가 아닌 지역에 정박하여 여러 날이 경과한 의심스러운 선박(다수의 기름통, 외국 물건 방치 등)이나 불법으로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신고 바랍니다. 대부도 지역에서 군부중인

군부대와 해양경찰의 당부사항이다. 신고 연락처:1338(군부대), 031-8046-2239(해양경찰)도 알리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앞 회전교차로 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의 차량들이 대부도 복지체육센터에서 좌회전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측 도로가 보이지 않아 놀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제는 영전마을에서 이어지는 영전로가 심하게 휘어져 있어 이곳에서 복지체육센터 방향으로 오는 차량을 순간적으로 보지 못하고 체육센터 이용 시민들이 좌회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가기 전 정면에 볼록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거울을 보면서 운행하는 시민은 극소수다. 따라서 복지체육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대부도 주민들은 이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쉽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다발 지역 알림

단원구청 가로정비과는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가 주·정차 금지구역임으로 알리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불법주·정차 민원 발생 시, 예고 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주민자치회 농업기술분과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오늘 8월 추진위해 판매자 모집중, 선착순으로 모집

대부동주민자치회(회장 김태성) 농업기술분과(분과장 김형배)가 오는 8월경 대부도에서 농수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하기 위해 판매자 모집에 들어갔다.

8월경 구봉도 제1주차장 버스킹 공연장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인 농

수산물직거래장터는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수산물 또는 그 농수산물로 가공한 가공품에 한해 판매부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대상은 안산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대부도 주민의 경우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 결과에 따라 오는 9월에 예정된 안산시 포토축제 행사장에서도 농수산물직거래장터를 운

영할 예정이고 10월에 또 한번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대부동주민자치회 농업기술분과장(010-5331-2880)이나 대부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31-481-6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제일로터리와 안산시의사회가 함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책임진다

안산시그룹홈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협약식 개최

‘마음튼튼·건강동행’ 트론케어 ‘닥터스마일’을 꿈꾸기 위해 안산시그룹홈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3일 오후 개최됐다.

협약에는 안산시의사회와 안산제일로터리가 함께했으며 안산시내 지역 아동센터장 전원과 안산시 복지국 아동권리와 직원들도 참석했다.

후원병원으로는 단원병원, 한사랑병원, 한빛여성병원, 선부한빛병원, 이제심혈내과, 비에이성형외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안산시내 지역아동센터 전체 아동(약 200여 명)의 매년 무료검진을 시행해주기로 하고 △안산시내 지역아동센터 전체아동과 관계자(약 250명정도)의 독감백신접종을 무료로 매년 시행하기로 하며



안산제일로터리클럽이 안산시의사회와 공동으로 안산시그룹홈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 등 안산시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기로 했다. 협약식을 마치고 안산시의사회, 안산제일로터리 클럽, 안산시내 지역아동센터장, 안산시 복지국 아동권리와 직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듣는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25~26년 안산제일로터

리 클럽 문곡 배상모 회장은 “안산제일로터리는 로터리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봉사해 나가겠다”면서 “안산시 아동청소년의 건강

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단법인 행복나눔글로벌센터 1박2일 여름캠프 삼육대수련원에서

5일과 6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삼육대학수련원에서 모두 30여명 참석

사단법인 행복나눔글로벌센터(이사장 김영수, 이하 글로벌센터)가 5일과 6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삼육대학수련원에서 여름캠프를 가졌다.

이날 글로벌센터 여름캠프에는 30여명이 참석해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게임과 공연을 펼치는 등 더 나은 글로벌센터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했다.

5일 첫날 오전은 버스를 이용해 여름캠프 장소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고 자유롭게 분임토론을 마친 참석자들은 바로 앞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며 자유시간을 가졌다.

저녁을 해결하고 이어서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을 가졌다.

평소 진행하던 레크레이션에서 이날은 특별하게 글로벌 단계 한국문화를 좀 더 쉽게 접하는 게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을 가졌다. 일정한 시간 내에 젓가락으로 콩을 옮기는데 많이 옮기

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도 있었다. 중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무대로 나와 한국어로 일정부분의 대사를 펼치는 시간을 갖는 시간도 마련했고, 다문화 아이들이 나와 장기인 태권도 공연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시간도 가졌다.

6일 이튿날에는 오전에 수련원 둘레길을 걷는 시간을 가졌고 아침식사 후 바다수영을 즐기는 자유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피드백은 따로 갖기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해 돌아오는 차량안에서 자연스럽게 각자 느낀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고 버스가 도착하자 즐겁고 행복했던 1박2일의 여름캠프를 마무리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김영수 이사장은 “날씨도 무더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름캠프에 참석해 매우 반가웠다”면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건강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어 행복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단법인 행복나눔글로벌센터가 5일과 6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삼육대학수련원에서 여름캠프를 가졌다. 이날 레크레이션을 마친 참석자들이 다 함께 모여 기념촬영에 임하면서 사랑의 하트를 날리고 있는 모습이다.

‘2025 안산시협회장기 탁구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탁구로 이어진 우정과 경쟁 지난 7월 5일 토요일부터 7월 6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안산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

‘2025 안산시협회장기 탁구대회’가 지난 7월 5일 토요일부터 7월 6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안산 올림픽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안산시체육회(회장 이광중)가 주최하고 안산시탁구협회(회장 김정수)가 주관했으며, 총 6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 속에서도 화합의 시간을 나눴다.

이틀간 펼쳐진 경기에서는 참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열정적인 승부를 펼쳤다. 특히 연령대와 실력에 따라 다양한 부문으로 진행되어,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경기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안산시탁구협회 김정수 회장은 “탁구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산시 탁구 발전을 위해



‘2025 안산시협회장기 탁구대회’가 지난 7월 5일 토요일부터 7월 6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안산 올림픽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산시체육회 이광중 회장은 “탁구는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한 스포츠이고,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탁구 꿈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안산시체육회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에서 롯데홈탁구클럽이 당당히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종합 준우승은 핑퐁스토리가, 종합 3위는 한아탁구클럽이 각각 차지하며 대회를 빛냈다.

특히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김동수 선수(롯데홈탁구클럽)는 모두의 박수 속에 영예로운 MVP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건강한 공동체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의 열정과 땀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간은 앞으로도 안산시의 탁구 발전과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성황리 개최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지능형 로봇 산업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안산교육지원청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안산 로봇도시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연수’를 경기모바일과학고, 경일관광경영고, 안산공업고, 안산디자인문화

고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산 로봇도시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청이 함께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직업계고와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지능형 로봇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지원체계이다.

이번 찾아가는 연수는 교육공동체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이해도 제고를

통해 로봇도시 안산에서 미래 산업을 위한 지능형 로봇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 내용은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개념과 추진 배경, ▲기관별 역할, ▲지능형 로봇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방향, ▲학교별 맞춤형 지능형 로봇 관련 직업 및 교육과정 연계 방안, ▲한양대학교 로봇직업교육센

터 연계 교육과정 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실무 역량을 강화하며, 졸업 후 지역 산업 현장에 취업하고 정착하여 지역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원일중학교, 학교 내 대안교실 나를 돌보는 힘 프로젝트 마련 위클레스 교실 ‘반짝교실’ 운영

정서적 어려움, 무기력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 겪는 학생 대상으로 운영

원일중학교(교장 최선형)는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8회기에 걸쳐 학교 내 대안교실 「반짝교실」을 위클레스 교실에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결과 위생을 주제로 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학생은 무단결석, 위생관리 어려움,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일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중심이었으며 활동 내용은 ▲천연스킨 & 수분크림 만들기 ▲바디클렌저 & 바디로션 만들기 ▲핸드워

시 & 퍼퐁핸드크림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고 사용해보며 자기 관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만들다 보니 재밌고 내가 만든 걸 쓰는 게 신기하다”, “요즘 나를 좀 더 챙기게 됐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선형 교장은 “이번 반짝교실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부적응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고잔동, 마을순찰대와 주민 대피 훈련 실시



단원구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마을 순찰대와 함께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고잔동장과 재난담당자, 마을순찰대원 4명이 참여해 반 지하 주택 거주 재해 약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고잔동 마을순찰대는 이번 주민 대피 훈련을 포함한 취약지역 예찰 및 안전 조치, 주민 대피 조력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고잔동 마을순찰대원 4명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 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을순찰대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인희 고잔동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마을순찰대의 예찰 및 대피 훈련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잔동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선부1동 지사협,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단원구 선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초복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과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나눔 사업은 선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후원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지사협 위원들은 직접 꾸러미를 포장하고 각 세대에 방문해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의 건강을 기원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정태수 민간위원장은 “초복을 앞두고 폭염에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삼계탕과 과일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은혜 선부1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봉사에 주신 선부1동 지사협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의 나눔이 가능했다”며 “폭염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동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선부2동 지사협, 저소득 가구에 선풍기 지원



단원구 선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저소득층 가구에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한 선풍기 15대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선부2동 119’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나눔은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사협 위원들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대비 생활안전수칙을 안내하며 선풍기를 전달했다.

유병석 민간위원장은 “이번 선풍기 나눔이 무더위 속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선부2동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속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지사협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와동, 치매안심마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단원구 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안심마을 주민주도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와동은 지난 2019년 3월 치매안심마을 제2호로 지정된 이후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인지 기능 활성화 ▲치매 위험 감소 ▲치매 인식 개선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수애자 와동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마을 중심의 건강 돌봄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이동, 취약계층 재난대피 자체 모의 훈련 실시



상록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비상대피가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 등 반 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체 재난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훈련에는 관내 취약계층 주민 16명과 대피 도우미 8명이 각 대피 구역별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인명 구조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이동식 물막이판과 워터펌 설치를 통한 수해 방어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훈련을 통해 안산시 상록구 이동 관내의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 대비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옥란 이동장은 “평상시 시민과 재난담당자의 꾸준한 대피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훈련에 대피 도우미로 적극 나서 주신 관내 통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2025년 초지동 주민총회’ 별망초 체육관에서 개최



단원구 초지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양균)는 지난 5일 별망초등학교 체육관에서 ‘2025년 초지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총회는 초지동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이 직접 발의하고 제안한 마을의제를 주민들에게 설명, 공유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앞서 주민자치회는 초지동 시민시장 사거리, 풀경공원 등 관내 6군데에서 3일동안 주민대상 사전투표를 진행하였다.

박양균 초지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초지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지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용방건설산업(주)

- | | |
|-----------------|----------------|
| ■ 토목사업 | ■ 지반조성 포장 공사업 |
| ■ 연약지반 공법 시공업 | ■ 중장비 매매 및 임대업 |
| ■ 파일 항타 공사업 |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 ■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대표 서승대 M. 010.2605.9877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35 2층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하 '경기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성과평가'에서 수도권 테크노파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S)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9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TP)를 대상으로, 2024년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행 성과와 2025년 사업 추진

경기TP,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성과평가 S등급 획득

계획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넘어, 중소벤처기업부의 MIDAS2027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제조혁신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가 고도

화 단계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군 예산 35억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초단계 스마트공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다. 이를 통해 기업 역량에 따른 스마트제조 전주기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는 ▲ '경기디지털전환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 공급

기술 상용화 지원을 통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 디지털전환 견학 공장 운영을 통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참여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수요 기반 정책 발굴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경

기도 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경기의 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경기도 디지털전환 및 스마트제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창 기자

축하, 홍보, 급매 광고 전문

생일, 결혼, 승진, 축하 광고.
상호, 제품, 행사, 영업 홍보.

급하다! 지금팔자! 부동산 급매물

대부도저널 광고국장
김선중 M: 010.3199.499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히든펜션**
HIDDEN PENSION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아테네펜션**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카캉스**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종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주)대동토지개발**

분양.임대.매매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육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서해부동산

박헌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김관중 M: 010.9080.1195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토야프렌즈

조기열 M. 010.9436.9055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03번길12, 1동 401호

문경북 웅진군수,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문 군수 “이번 자유장 수상은
웅진군민과 함께 만든 성과”

문경북 웅진군수는 7월 1967년 창립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and Democracy, WLFD)으로부터 자유장을 수상했다. 자유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인류 번영에 기여한 각국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국제적 권위의 상으로, 이번 수상은 문경북 군수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 혁신과 도서지역 균형 발전, 군민 삶의 질 향상 노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웅진군은 민선 8기 문경북 군수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군정’을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초고령사회 대응과 군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경북 웅진군수는 “이번 자유장 수상은 웅진군민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웅진군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문경북 웅진군수는 7월 1967년 창립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and Democracy, WLFD)으로부터 자유장을 수상했다. 김태창 기자

웅진군 연평1·2지구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 마무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에서

웅진군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교수, 감정평가사,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연평1지구·연평2지구 총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웅진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

서 연평1지구 552필지(251,038.6㎡), 연평2지구 342필지(51,503.5㎡) 총 89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교수, 감정평가사,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연평1지구·연평2지구 총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김태창 기자

웅진군, 2025년 전통장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와

청주시·담양군 지역으로

웅진군은 7월 3일과 4일 양일간 전통장류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청주시, 담양군 지역에서 전통장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벤치마킹 1일차에는 충북 청주시의 ‘옥샘정’을 방문하여 재래식 된장·간장 생산 과정과 품질관리 요령, 전통 발효 방식과 현대식 생산 방식을 접목한 운영 사례를 배우고, 우리 군 전통장 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일차에는 전남 담양군의 ‘우리콩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전통장류 제품의 공동생산 및 공동브랜드 운영 사례,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및 안정적 원료 수급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통장류의 농가 소득화 및 특산품 육성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전통장류 생산 농가들이 협력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유통·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영농조합법인 설립 필요성과 절



웅진군은 7월 3일과 4일 양일간 전통장류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청주시, 담양군 지역에서 전통장류 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차,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연구회원은 “전통장류 생산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전통

장을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웅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통장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장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향후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

가 소득 증대, 지역 전통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장류 연구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구상, 다양한 전통장류 품목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제249회 웅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7월 4일 폐회

웅진군의회(의장 이의명)는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31일간 진행된 제249회 웅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5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애)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승인안 심의 등의 활동을 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태창 기자



양지개발 토지컨설팅사무소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방조제길 11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흥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8일 오전 시흥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시흥시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는 몽골,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각국에서 모인 25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스물다섯 분의 대원들이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은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빛나는 결실이 바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원들께서는 앞으로 일상에서, 때로는 재난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시길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8일 오전 시흥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태창 기자

전문가 칼럼

수상태양광,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지역 갈등의 불씨인가 (하)



김시경
대부도협동조합 전무이사

기술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현재 수상태양광을 위한 표준 설계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부유체와 계류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술은 여전히 불완전한 수준이다. 제도적으로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설치 허가 절차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

이처럼 기술적·제도적 불확실성과 지역사회 반발이 맞물리며, 수상태양광은 때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씨앗’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술이 사회적 수용성을 얻고, 탄소중립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첫째,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생태계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하며,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다.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형 RE100 모델이나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참여와 수용성이 가능해진다.

셋째, 기술의 고도화와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수상태양광 전용 설계 가이드라인, 안정성 인증 제도, 표준화된 시공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를 확보해야 시장이 신뢰할 수 있고, 정책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은 분명 ‘기회’다. 그러나 그 기회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된다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뿐이다. 수상태양광이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기술과 제도, 그리고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추진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공감이다.

과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그것이 수상태양광이 가야 할 길이다.

경기북부 여성기업인 한자리에, ‘제4회 경기여성경제인대회’ 개최

경기도는 10일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4회 경기여성경제인대회’ 경기북부지역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경기북부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성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승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장,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성남 경기도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최미숙 의정부세무서장, 여성기업인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총 19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공직자 칼럼



김미옥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청렴은 그 신

뢰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무기이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라면 매일 실천해야 할 가치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君子不器)”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렴 역시 형식적 실천만으로는 안 된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조직의 신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청렴이 되는 것이다. 즉, 청렴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실천이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반부

진정한 청렴 실천이란?

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스스로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자가 진단, 청렴의 달 운영, 청렴 콘텐츠 공모전, 지사별 청렴실천반 운영, 청렴 교육 등을 통해 구성원의 청렴 내재화와 실천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8년 연속(2017년~2024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다.

공단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항상 겸손할 것이며, 그것이 곧 국민의 명령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필자가 소속된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는 안산시 주민을 대상으로 연금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27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7만 6천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45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조사,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 신청안내 등 업무를 위탁받아 지자체와 긴밀한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AI가 설계하고 시민이 누린다… 안산시, 스마트도시 혁신 가동

안산시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기술을 앞세워 도시 혁신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책·행정·도시 전반에 첨단기술을 융합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서 안산시는 5.3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산시는 국비 80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총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집약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도시 혁신의 길을 열고 있는 민선 8기 안산시의 노력을 조명했다.

데이터로 혁신하는 '스마트 행정'

안산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도시 노후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단순한 IT 인프라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고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AI 행정혁신 추진단'은 공무원, 한양대학교 교수진,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AI·IoT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예산 효율화, 공공서비스 고도화 등 실질적 혁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러한 추진단의 활동은 단발성 사업을 넘어, 안산의 행정 혁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일 안산시는 고려대학교·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AI·빅데이터 프로젝트 발굴, 기술지원 등 민·관·학 협력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협력을 통해 빈주차 공간 실시간 안내, 교통신호 최적화, 다국어 안내·관광·행정 서비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선정, 160억 원 규모 대규모 혁신 본격화



2025년 7월 1일 안산시-고려대-KT AX정책 협의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2025년 7월 1일 시 청년창업펀드 2호 기업 (주)클라우드앤(대표이사 김정석)과 에너지 절감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성용 기자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를 결합한 MAAS(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시민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빅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 가속화

안산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지역~호수공원~한양대ERICA~도시정보센터를 잇는 자율

주행 셔틀 서비스를 비롯해,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다국어 통합 안내·행정 플랫폼, 다문화권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 활성화 전략,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솔루션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도시정보센터와 중앙도서관에 AI 기반 에너지·시설 통합 플랫폼을 설치,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 플랫폼은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

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자동으로 분석·제어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오는 9월 26일 열리는 'Sustainability Expo 2025'에 안산시가 공식 초청되어 참가를 검토 중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안산시가 보유한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기술력을 선보이며,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 조직과 제도로 뒷받침

민선 8기 안산시는 대규모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교육국 산하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스마트도시정책팀과 ▲AI빅데이터팀을 편성해 전담 조직을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에 접수를 마쳤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각종 개발사업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안산이 만들어가는 스마트도시는 단순히 하드웨어와 인프라의 발전을 넘어 데이터로 움직이고, AI가 생각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는 도시를 지향한다. 시는 기술 중심의 보여주기식 스마트도시가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서비스 구현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시티로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현, 전국 지자체로 확산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포부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이 추진하는 스마트도시는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협력형 플랫폼"이라며 "이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안산이 스마트도시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주문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드립니다

모든 수조는 독일 WACKER(바커)사의 아쿠아리움 전용 실리콘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규현 공방 010-4071-2797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4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에서 만난 사람들[상]



晴境(청경) 金善철(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2018년 7, 8월 두 달간 김선철과 신정웅 교장, 박명훈 의원, 이군희 지회장은 대남초등학교 학구 내 주민과 졸업생, 선생님 등의 증언을 들었다. 과연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소재인 해당화꽃, 서울에서 온 총각 선생님, 철새, 19살 섬 색시,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 학교 등 사회적, 환경적인 면이 노래 배경지와 얼마나 근접(近接)하였는지 면담(面談)하고 녹화(録畵)도 했다.

첫 번째,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증언을 들은 사람이다. 2010년 4월 6일 저녁 대남초등학교 근처 바닷가 ‘고랫부리횃집’에서 해프는마을펜션 공사 책임자 정○환 소장이 KBS ‘용의 눈물’ 김재형 PD를 소개해 주었다. 이분은 펜션 광고 촬영 협의차 왔고, 박춘석 작곡가와 이경재 작사자는 방송 작업을 함께한 동료이자 호형호제하던 사이라 했다. 예

전에 많았던 해당화를 학교에 심었다고 하였더니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는 대남초등학교이고 노래 속의 총각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 학교 ‘총각 선생님’이라 하였다. 이것을 발단으로 노래 배경지에 대한 근거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노래 배경지 증언을 들은 주민이다. 2018년 8월 8일 당시 ‘고랫부리횃집’이 중현동 여숙으로 옮겨 ‘고랫부리바지락칼국수’ 집을 운영하던 김순라 사장을 만났다. 정○환 소장과 함께 온 KBS 김재형 PD가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는 대남초등학교라고 김 교장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세 번째, 작가 일행의 대부도 흠족 유람(遊覽) 가능성이다. 2018년 8월 8일 오전 마포나루에서 손님을 태워 온 소금 돛배 선장(船長)의 증언을 들었다. “소금을 싣고 마포나루까지 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서울 마포나루에서 흠족으로 올 때 뒤바람만 맞으면 2~3시간이면 왔다” 우리 집 앞에 큰 염전(鹽田)이 세 개 있었는데 긴장불이 바닷가는 수만 평의 해당화 군락지였다. 마포나루에 싣고 간 소금은 장사꾼이 일꾼을 데려와 바로 하선(下船)하였다. 대남초등학교는 멀고 더 시골이라 선생님들이 오기 싫어하였고 교장과 선생님들은 1~2년 후면 금방 떠났다. 갯바탕이 좋아 스승의 날에는 잔치 준비를 해서 잘 대접하였다. 배가 고장나 임파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민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아



신정웅 교장 선생님과 대부도해설사들이 셋터와 용두 고개 주변 이야기 증언 모습.



이군영 소금돛배 선장이 대남초 염전체험객들에게 염전 이야기를 하는 모습.

주머니가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되었으나 남편은 풍도 사람들과 도리도에 조개를 캐러가고 없어 산파 노릇을 하게 된 기막힌 일, 소금 나르기 선장을 하며 겪었던 일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네 번째, 2018년 8월 8일 오후 대부남동 17동 김대환 전 통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1960년대 초 숙소가 거의 없던 시절, 소금 돛배를 타고 온 손님들은 총각 선생님들을 만나 학교 교실에서 머물렀다고 하였다. 그리고 1960~70년대에는 마을 주변 바닷가와 대남초등학교 주변 모래언덕에 수만 평의 해당화 군락지가 있었고 봄과 가을에는 철새도 학교 앞 갯벌에 가득했다. 선생님들은 방학이 아니면 육지의 집에 갈 수 없어

가족이나 친구 등 육지 손님들이 많이 다녀갔다. 생일, 회갑 등 각종 잔치 날은 학교 선생님을 자주 모셨고, 섬색시들과 어울릴 기회도 많았다. 그 당시는 집집마다 농주(農酒)를 많이 담아 술 인심이 좋았고 총각 선생님 몇 분은 섬색시와 결혼을 하였다. 다섯째, 2018년 7월 30일 대부도 학교에서 근무한 신정웅 교장 선생님의 증언이다. 인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 초 고향인 대동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 근무했다. 누구와 어울릴 사람이 적어 주말에는 풍광이 좋은 대남초등학교까지 10리(4km)를 걸어가 총각 선생님들과 어울려 바닷가에서 술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학교 주변은 해당화 군락지였고 철새도 많이 왔다. (다음호 계속)

데스크 칼럼

관광지 선정,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에서 출발해야



김태창
편집국장

안산시가 최근 ‘안산 12경’을 새롭게 선정해 발표했다. 기존 ‘안산 9경’에서 대부도 중심의 관광지 위주였던 구성에서 벗어나, 시내권과 도심 인근 명소를 포함하며 관광지의 균형적 분포와 시민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점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롭게 포함된 김홍도길, 수암봉과 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 등은 예술, 역사, 생태, 휴식이라는 다양한 테마를 포괄하며 안산의 숨은 매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관광지 선정에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는 있었지만, 실제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의 이용 패턴, 만족도, 체류 시간, 재방문 의사 등 실질적인 ‘수요’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 관광지 선정은 단순히 ‘보여주고 싶은 장소’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김홍도길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는 생활밀착형 공간이지만, 외부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인

프라는 아직 미흡하다. 바다향기수목원 역시 조용한 휴식처로는 제격이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은 부족하다. 이처럼 장소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상징성만으로는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도약이 어렵다. 무엇보다 관광객의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프로그램과 연계 콘텐츠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관광지 지정 과정에 ‘수요자 중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도입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방문객들의 이동 경로, 체류 시간, SNS 언급량, 리뷰 분석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인기 장소와 개선 필요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선정된 관광지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명소별 테마별 관광 코스를 설계해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김홍도길과 성호박물관, 단원조각공원은 하나의 문화예술 테마로 묶고, 수암봉과 읍성, 무궁화동산은 역사탐방 코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셋째, 관광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로컬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 해설사, 체험공방, 지역 상인의 먹거리 투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교통편 연계도 필수다.

관광은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안산시의 12경이 이름값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드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제는 행정의 시선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에서 출발해야 할 때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5년 경력 간판 제작 설치 전문업체

Led채널. 특수제작간판. 썬팅. 현수막. 명함. 판촉물



mi-re
enterprise

미래기획

대표 이 병 철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3(대부북동) ☎ 010.9366.9699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감성과 수익이 흐르는 부지
대부도 말부흥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